

2026년 6월 15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 KIWOOM WEEKLY

## KIWOOM WEEKLY

### 금리와 수급이 좌우하는 증시 변동성

이번 주 코스피는 1) 미-이란 휴전 협상 최종 서명 기대감, 2) 6월 FOMC, BOJ 회의, 3) 미국 5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주요 지표, 4) 스페이스 X 주가 및 수급 변화, 5)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수 지속 여부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확대 장세를 이어갈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7,800~8,700pt).

이번 주에도 매크로 종속 국면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 후반에 예정된 6월 FOMC가 증시 분위기를 좌우하는 메인 이벤트가 될 전망. 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주된 관심사가 될 전망. 지난 금요일 코스피에서 25거래일만에 처음으로 순매수(+2.1조원)에 나섰기 때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차익실현 강도를 높였던 명분이 매크로 불확실성이었음을 감안 시, 주중 6월 FOMC, 미-이란 최종 협상 과정 등을 중립 혹은 중립 이상으로 소화한다면, 이들의 순매수에도 연속성이 부여될 가능성을 열고 가는 것이 적절.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12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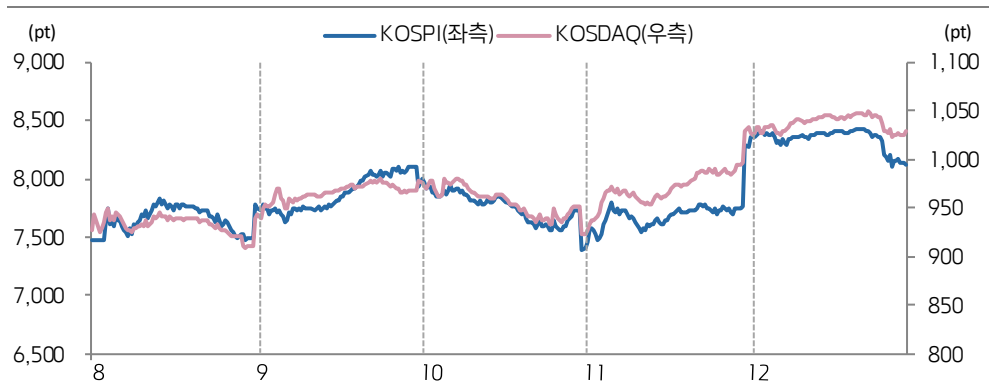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주 초반 미국 금리 상승 우려와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급락했으나, 주 후반 종전 기대감 확산과 외국인 수급 개선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KOSPI -0.45%, KOSDAQ +2.65%).

코스피는 주 초반 미국 5월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 긴축 우려와 미-이란 협상 교착, 호르무즈 해협 인근 무력 충돌 등이 겹치며 급락.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5원까지 상승하며 외국인 수급 부담이 확대됐고, 6월 8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극대화. 이후 종전 협상 관련 소식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으나, 주 후반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 취소 및 종전 협상 진전 발언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 12일(금요일)에는 코스피가 장 초반 6% 넘게 급등하며 올해 들어 13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 반등을 견인.

대외적으로는 중동 정세 변화가 증시 방향성을 결정한 주간. 주 초반에는 미국 고용 호조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과 중동 긴장 고조가 달러 강세 및 외국인 매도세를 자극하며 위험자산 선호를 위축시켰으나, 주 후반 종전 협상 진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정학 리스크가 빠르게 완화. 이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 전환하고 외국인 수급이 개선된 가운데, AI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유지되며 반등 탄력이 강화.

업종별로 의료/정밀기기(+14.01%), 건설(+10.83%), 섬유/의류(+8.49%), 종이/목재(+4.86%), 오락/문화(+4.63%)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IT 서비스(-6.86%), 운송장비/부품(-4.56%), 증권(-3.91%), 보험(-3.33%), 제약(-2.42%)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국인(-4조 3,061원)은 기계/장비(-4,311억원), 일반서비스(-1,622억원), 통신(-1,359억원), 유통(-709억원)순으로 순매도, 기관(+527억원)은 금융(+21,294억원), 기계/장비(+6,672억원), IT 서비스(+5,713억원), 일반서비스(+2,395억원)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2026년 6월 15일

KIWOOM WEEKLY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6월 15일	월	EU	산업생산 (MoM)	4월	-	0.2%
		미국	뉴욕 제조업지수	6월	12.5	19.6
			산업생산 (MoM)	5월	0.2%	0.7%
			NAHB 주택시장지수	6월	36	37
	행사	G7 정상회의 (~17일)				
6월 16일	화	중국	산업생산 (YoY)	5월	4.3%	4.1%
			고정자산투자 (YTD YoY)	5월	-2.3%	-1.6%
			소매판매 (YoY)	5월	0.0%	0.2%
		EU	ZEW 서베이 예상	6월	-	-9.1
		미국	수입 물가지수 (MoM)	5월	-	1.9%
		회의	BOJ 통화정책회의	6월	1.00%	0.75%
6월 17일	수	EU	CPI (YoY, 최종치)	5월	-	3.0%
		미국	소매판매 (MoM)	5월	0.5%	0.5%
			근원 소매판매 (MoM)	5월	0.4%	0.7%
6월 18일	목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전망	6월	12.0	-0.4
		회의	FOMC 회의	6월	3.50-3.75%	3.50-3.75%
		회의	BOE 통화정책회의	6월	-	3.75%
		행사	EU 정상회의 (~19일)			
6월 19일	금	한국	PPI (YoY)	5월	-	6.9%
		일본	CPI (YoY)	5월	-	1.4%
			근원 CPI (YoY)	5월	-	1.4%
	휴장	미국 (Juneteenth), 중국·홍콩·대만(단오절)				
	증시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 주 코스피는 1) 미-이란 휴전 협상 최종 서명 기대감, 2) 6월 FOMC, BOJ 회의, 3) 미국 5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주요 지표, 4) 스페이스 X 주가 및 수급 변화, 5)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수 지속 여부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확대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7,800~8,700pt).

12일(금) 미국 증시는 스페이스 X(+19.2%) 상장 흥행에 따른 나스닥 내 여타 기술주들의 기계적인 자금 이탈 부담에도, 미-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따른 WTI 85달러 하회, 6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인플레이션 둔화(4.6% vs 컨센 4.9%)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0.7%, S&P500 +0.5%, 나스닥 +0.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5%).

지난 5일 이후 주식시장은 유가 재급등 및 금리 상승, 연준 긴축 불안 등 매크로 불확실성에 빈번하게 노출됐었지만, 지난주 중반 이후 미국과 이란의 확전 억제 및 협상 기대감 재생성에 힘입어 주가 회복력을 보였던 상황. 15일 오전 트럼프 SNS, 이란 외무부 등을 통해 양국간 휴전 MOU가 17일~19일 중 체결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매크로상 주 후반 6월 FOMC가 증시 분위기를 좌우하는 메인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최근 알파벳, 오라클 등 빅테크 업체들의 자금 조달(채권 발행, 유상증자) 이슈가 증시의 잠재적인 불안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연준의 정책 경로 변화에 따른 미국 시장금리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배경이기 때문. 즉, “시장 금리 상승 -> AI 업체들의 채권 발행 및 이자 부담 증가 우려 -> 이를 대체하기 위한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주주 가치 훼손 및 AI 투자 수요 둔화 -> 반도체 슈퍼사이클 논리 희석” 등 (아직 확률은 미미하지만) 부정적인 시나리오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6월 FOMC가 될 예정.

일단 6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된 상태이기에, 점도표 변화,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 기자회견이 더 중요할 전망이다. 3월 FOMC 점도표 상 연준은 연내 1회 금리인하(중간값 3.4% vs 현재 3.50%~3.75%)를 제시했으나, 이미 시장에서는 연내 1회 금리 인상에 베풀고 있음을 감안 시, 6월 점도표에서 연내 금리인상으로 선화하는 지가 관건. 전쟁발 에너지 인플레이션 판단, 대차대조표 변화 등을 둘러싼 연준 내 의견 분열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 지도 관전 포인트. 케빈 워시가 이전 청문회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포워드 가이드نس, 연설 등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변화 여부도 간과할 수 없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

이처럼 6월 FOMC는 이전 회의 때보다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최근 주가 조정 및 단기 금리 발작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를 프라이싱 해온 측면이 있음. 따라서, 연내 1회 인상을 넘어, 인플레이션 리스크 확대, 조기 금리인상의 필요성, 대차대조표 조기 축소 등 공격적인 매파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충격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

그 외에도 금리 인상이 유력한 6월 BOJ 회의, 미국의 5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여타 중앙은행 회의, 경제 지표 이벤트들도 대기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스페이스 X 상장이 초래할 수급 변화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임. 지난 금요일 상장한 스페이스 X는 단숨에 시가총액 2.1조달러를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 내 시가총액 6위권에 진입한 상황. 이번 주에도 스페이스 X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내외 우주 테마 ETF, 테크주 ETF 등 패시브 펀드들의 해당 주식에 대한 기계적인 편입, 알파를 내기 위한 액티브 펀드들의 편입 욕구가 출현할 것으로 판단.

이는 같은 테마 내 우주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반도체, AI 등 국내외 IT주들에서 스페이스 X로의 자금 이동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 물론 어디까지나 실적 등 IT주 펀더멘털과 무관한 수급 이슈 이기에, 추세적인 자금 이탈로 변질되지 않을 것이기는 함. 다만, 증시 전반에 걸친 수급 변동성을 일시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중 대응 전략에 반영해 놓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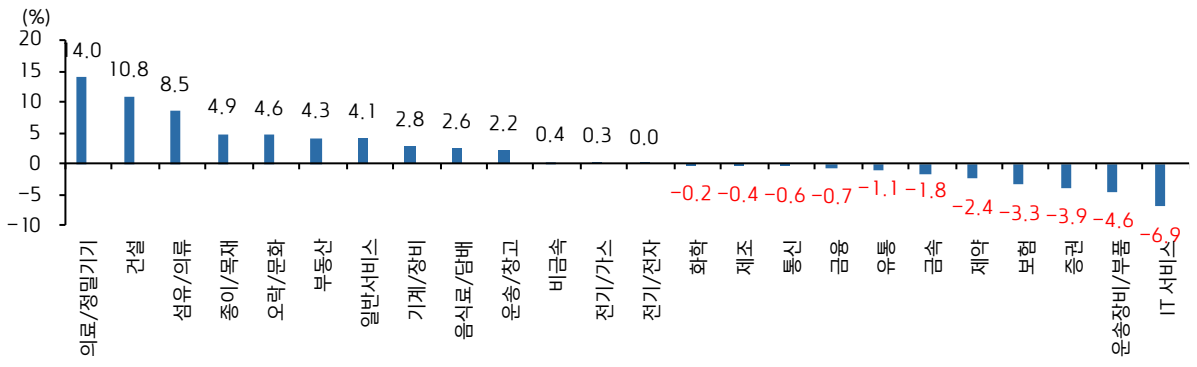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주된 관심사가 될 전망. 지난 금요일 코스피에서 25거래일만에 처음으로 순매수(+2.1조원)에 나섰기 때문. 직전 24거래일 동안(5월 7일~6월 11일)의 누적 순매도 금액이 75.6조원에 육박했던 만큼, 금요일 2.1조원 순매수만을 놓고 외국인 순매도 사이클의 종료 여부를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음. 동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차익실현 강도를 높였던 명분이 매크로 불확실성이었음을 감안 시, 주중 6월 FOMC, 미-이란 최종 협상 과정 등을 중립 혹은 중립 이상으로 소화한다면, 이들의 순매수에도 연속성이 부여될 가능성을 열고 가는 것이 적절.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8,123.62	4.6	-0.5	6.3	92.8
대형주	8,935.80	4.8	-0.7	7.8	104.1
중형주	4,579.73	3.0	2.8	-8.4	23.0
소형주	2,485.23	2.9	1.9	-13.3	-1.3
코스피 200	1,291.32	4.9	-0.4	9.1	113.1
코스닥	1,029.05	3.2	2.7	-12.7	11.2
대형주	2,655.26	3.6	4.4	-6.9	17.9
중형주	1,024.03	3.0	1.7	-17.4	13.8
소형주	2,645.16	2.5	0.5	-18.0	2.8
코스닥 150	1,836.54	3.7	3.9	-7.0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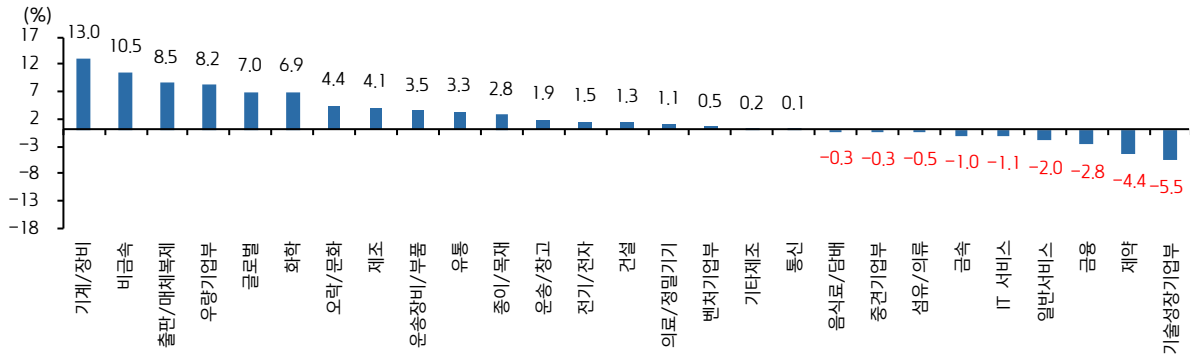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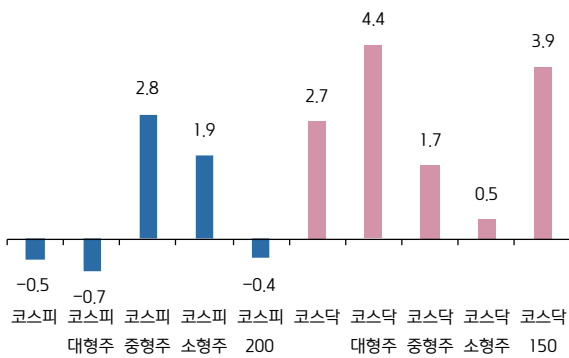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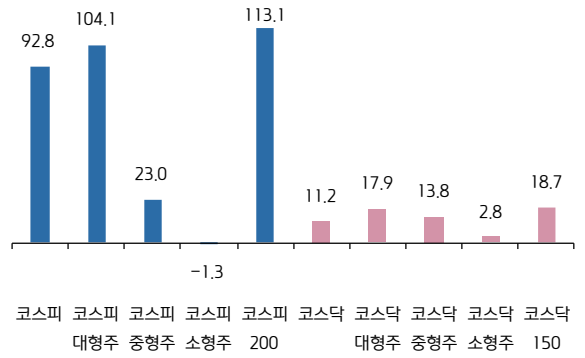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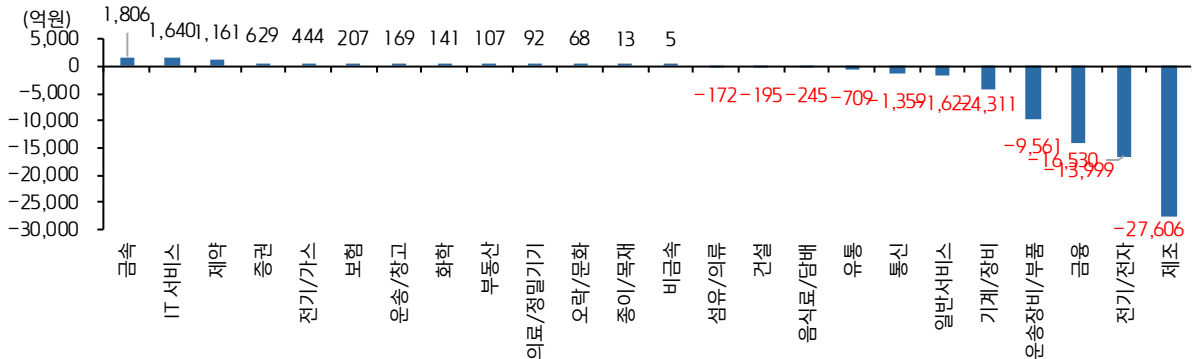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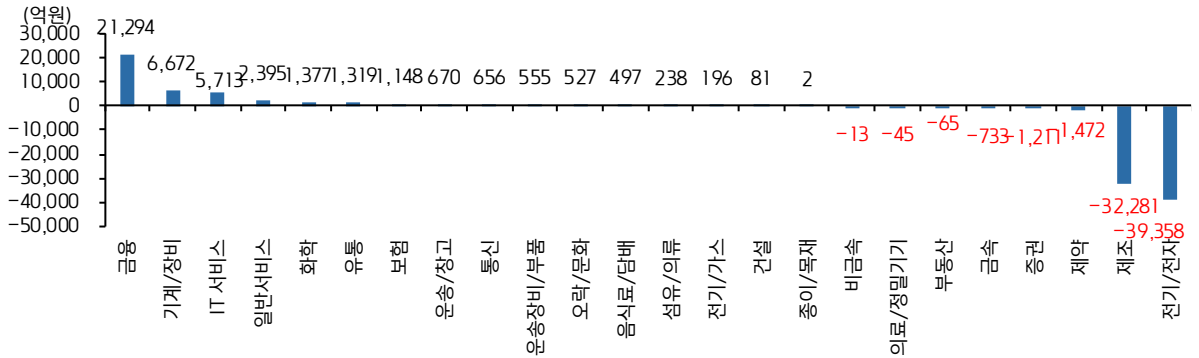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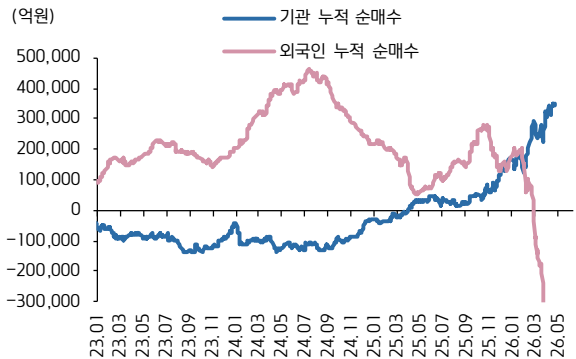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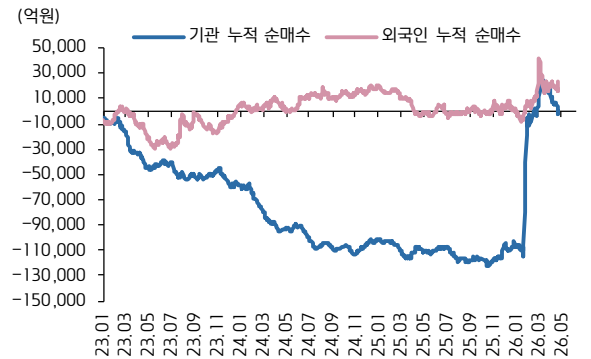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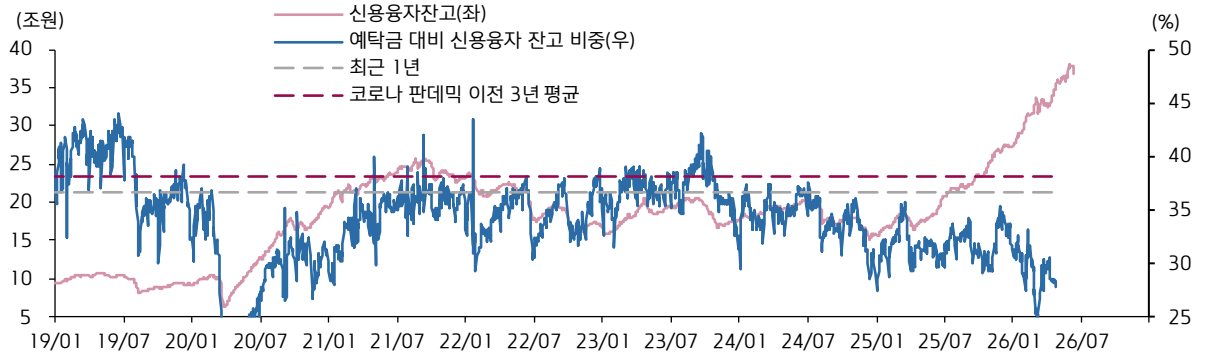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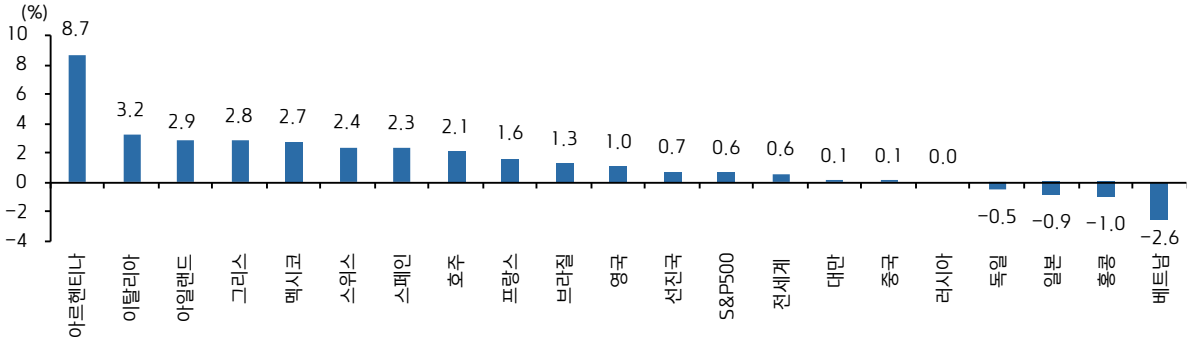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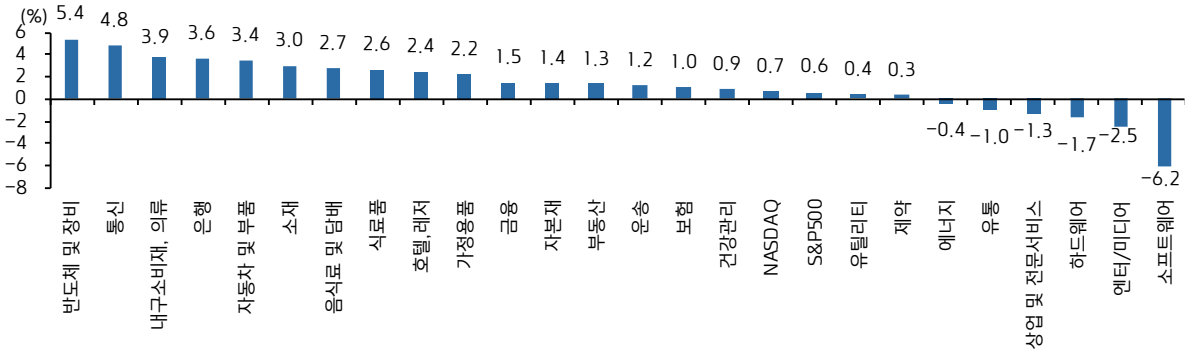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